

[Original Article]

Research trend of Korean costume design
- Focusing 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and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

Minjae Han and Younhee Lee^{*†}

Doctoral Course, Human-Tech Convergence Program,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Korea^{*}

한국복식 디자인의 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 <복식>과 <한복문화> 학술지를 중심으로 -

한 민 재 · 이 연 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bstract

A lot of work has been done on the topic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In spite of the amount of the work, however, not much work has appeared that summarizes the overall research trend in such a way that we gain insights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field. This study aims to work out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that may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field and also on the things that have to be done to further develop the Korean costume design field. The analysis reported in this work is based on the articles that appeared in two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published by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661 articles from the year 1977 to 2019) and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published by the Society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762 articles from the year 1998 to 2019).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only a very small amount of work is devoted to actual designing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and this has to change to globalize Korean traditional fashion and draw worldwide attention to it. So more work is needed particularly on actual designing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This does not mean that we simply have to maintain tradition and replicate the original designs, but we have to endeavor to work out novel designs by, for instance, creative destruction and restructuring, maintaining the essence of the tradition of Korean costume.

Keywords: Korean costume(한국복식), Korean costume design(한국복식 디자인), research trends(연구동향)

Received May 10, 2020

Revised July 08, 2020

Accepted July 16, 2020

[†]Corresponding author
(yiyhee@hanyang.ac.kr)

ORCID

Minjae Han

<https://orcid.org/0000-0001-9334-5320>

Yo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2241-3899>

I. Introduction

K-drama, K-pop, K-beauty 등의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의 전통의상인 한복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의를 얻게 되었다.

(Wang, 2011). 최근에는 K-pop 아이돌이 공연 무대, 뮤직비디오, 공항 등에 한복을 입고 등장하면서 이들이 착용한 현대화된 한복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어 완판되기도 하였으며(S. Y. Kim, 2019), 고(故) 이영희(Y. R. Kim, 2019), 차이 김(Kim, 2016), 이상봉(Park, 2015), 진태옥(K. S. Park, 2013) 등 많은 한국 디자이너들의 영향으로 해외 패션계에서도 한복 혹은 한국적 전통을 모티브로 한 패션 디자인이 세계적인 패션 무대, 전시 등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그 예로 샤넬(Chanel)의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고(故)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2015년 5월 한국 동대문 DDP에서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2015-16 크루즈 컬렉션을 선보였으며(Lim, 2015), 캐롤라이나 헤레라(Carolina Herrera)는 2011년 S/S 뉴욕패션위크에서 한복 저고리의 깃과 고름, 갓 등에서 영감을 받은 웨딩드레스, 이브닝드레스, 기성복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복진흥센터와 협업하여 2017년 2월 15일 뉴욕 아트 앤 디자인 박물관(Museum of Arts and Design)에서 열린 쇼케이스를 통해 해외 패션업 관계자들에게 한복과 장신구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E. Y. Kim, 2017). 이 외에도 라프 시몬스(Raf Simmons)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2018년도 컬렉션에서는 한글이 등장하기도 했으며(Kim, 2018), 2019년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컬렉션에는 태극기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E. Y. Kim, 2019).

이와 같이 한국의 문화와 한복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도 꾸준히 높아지는 시점에서 학술계에서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한국복식(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식’이라는 용어를 한국 전통복식뿐만 아니라 한복 및 한국적 전통을 모티브로 개발한 복식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였다)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가 현재 어떠한 분야들로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특히 한복의 현대적 변화에 따른 디자인 연구동향과 이를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의 분포도를 조사하여 디자인 분야에서의 한복의 발전과 앞으로의 한국복식 개발의 방향성을 찾아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학술계에서 우리나라 전통복식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현재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학술지에 수록된 한국복식에 관한 연구만 해도 그 양은 상

당히 많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비해 전반적 연구 경향과 흐름을 정리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복식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 개발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복식의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Kim(2007)의 “학술지를 통해 본 한복문화학회 연구 현황에 관한 고찰” 연구와 K. H. Kim(2017)의 “한국복식에 관한 국내 학술연구 동향 분석” 연구가 있다. Kim(2007)의 연구는 한복문화학회지의 창간호인 1998년부터 2007년 10권 1호까지 한국복식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 외 발행된 모든 연구들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였다. 연구 분야는 역사, 디자인, 미학, 산업, 염색, 구성, 동양, 기타 총 8개로 나누어 각각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K. H. Kim(2017)의 연구는 국내 5개의 학회지인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복식문화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한복문화>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발표 논문 대상으로 한국복식에 관한 학술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연구 분야를 각각 역사, 디자인 및 미학, 마케팅, 직물 및 염색, 구성, 기타 총 6개로 분류하여 그 동향을 정리하였다. 두 학술지 분류 기준의 차이점은 디자인 분야와 미학 분야를 함께 혹은 각각 따로 나누어 정리한 점, 그리고 K. H. Kim(2017) 연구의 경우, 전체 연구 대상이 한국복식에 관한 연구에만 초점을 두어 ‘기타’ 항목까지도 한국복식에 관한 교과 및 교육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한 것에 비해 Kim(2007) 연구는 ‘기타’ 항목을 서양복 분야로 나누어 차이를 둔 점이였다. 즉 추가된 ‘동양’ 목록에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동양권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고, 나머지 목록은 모두 우리나라와 관련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본 연구 시점까지의 수록된 연구 중 한국복식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없었으며, 2015년까지의 학술 동향 연구 이후 현재까지 한국복식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 만큼, 추가된 다양한 연구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한국복식에 관한 연구 분야별 동향 분석은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도 보완점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를 세분화한 한국복식 디자인의 연구동향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국복식 디자인의 연구 경향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한국복식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식 중심의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한국복식의 전반적 연구 동향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시기별로 그 동향을 세분화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변화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이는 한편, 향후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점이 시급히 요구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K. H. Kim(2017)은 한국복식의 디자인 분야를 미학 분야와 함께 수치화하여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분야를 더욱 세분하여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그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Object of analysis

본 논문의 연구 분석 자료는 1977년 창간된 한국복식학회의 <복식>과 1997년 한복문화 연구회가 설립한 한복문화학회의 <한복문화>로 선정하였다. 이 두 학회의 학술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는 이 두 학회가 한국복식의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인바, 한국복식 및 한국적 복식 전통에 관한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연구 범위는 한국복식학회가 발행하는 <복식>의 경우 창간호인 1977년 제1권부터 본 연구 기간 중인 2019년 12월 69권 8호(통권 제223호)까지 수록된 발표 논문 총 2,661편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복문화학회가 발행하는 <한복문화>의 경우 창간호인 1998년 제1권 1호부터 본 연구 기간 중인 2019년 12월 제22권 4호까지 수록된 발표 논문 총 762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Method of analysis

자료 분석 방법은 먼저 선정된 연구 대상 중에서 연구논문 제목을 중심으로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과 관련된 연구를 추출하였다. 한국복식 디자인 개발 현황의 세부적인 분석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연구 대상을 한국복식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한국복식 이외에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까지 다

룬 이유는 한국적인 것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 전통에 관한 연구들이었고, 이는 한국복식과 완전히 구분하여 제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적인 것에 관한 연구라 하더라도 근대기 이후 서양문물의 도입에 의한 한국복식의 서구화에만 초점을 둔 연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서구화 과정에서도 한국 전통복식 혹은 이를 함께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연구는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한국복식과 관련이 없는 한국 이외의 다른 동양권 및 서양권에 관한 연구와 한국의 전통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와 거리가 있는 연구들은 연구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추출된 논문은 다시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류된 연구 주제는 ‘한국 복식사’, ‘한국복식 미학’, ‘한국복식 디자인’, ‘한국복식 마케팅’, ‘한국복식의 의복구성’, ‘한국복식의 소재’, ‘한국 전통 액세서리 및 소품’, ‘한국 전통 뷰티 및 향장’ 그리고 ‘기타’ 총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연구논문 제목만으로 목록을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직접 연구 내용을 읽고 논문이 전체적으로 치우친 연구 방향 쪽으로 그 주제를 분류하였다. 분야가 두 가지 이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가장 큰 핵심 주제를 다루는 쪽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이전의 선행연구들이 분류한 연구 분야별 목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본 연구는 ‘한국 전통 액세서리 및 소품’과 ‘한국 전통 뷰티 및 향장’ 목록을 추가한 점이다. 이전의 한국복식 관련 동향연구 이후 추가 연구된 목록들을 수집한 결과, 한국 전통 액세서리 및 소품, 그리고 한국 전통 뷰티 및 향장들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연구 분야 목록을 새롭게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이 두 목록 이외의 다른 목록들은 한국 ‘복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으며, 이외에 어느 분야에도 분류하기 어려운 연구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 학술지별 약 10년간의 단위로 기수를 나누어 시기별 및 분야별로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동향의 변화 흐름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각 분야별 연구동향을 비교하여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고,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에 관한 연구동향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prior studies and this work

	Kim(2007)	Kim(2017)	This work
Journals used in the analysis	- <i>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i>	- <i>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i> - <i>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i> - <i>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i> - <i>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i> - <i>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i>	- <i>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i> - <i>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i>
Scope of analysis	Analyzed studies on Korean costume as well as on other fields of costume from 1998 to vol. 10 no. 1 of 2007	Analyzed the trends of academic research on Korean costume from 2005 to 2015	- Analyzed papers from vol. 1 of 1977 to vol. 69 no. 8 of 2019 (vol. 223) - Analyzed papers from vol. 1 no. 1 of 1998 to vol. 22 no. 4 of 2019
Classification of areas	- History - Design - Aesthetics - Industry - Dyeing - Clothing construction - Oriental costumes (outside of Korea) - Other (western costumes)	- History - Design and aesthetics - Marketing - Textiles and dyeing - Clothing construction - Other (textbooks and educational programs on Korean costumes, etc.)	- History of Korean costume - Aesthetics of Korean costume - Korean costume design - Korean costume marketing - Construction of Korean costume - Textiles of Korean costume - Korean traditional accessories and props - Korean traditional beauty and cosmetics - Other

III. Results and Discussion

1. Analysis of the studies on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in each journal

<복식>의 발표 수록 연구는 총 2,661편이었으며, 이 중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는 전체 수록 편수의 31.0%인 826편으로 추려졌다. <한복문화>의 총 발표 수록 연구는 762편이었으며 이 중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주제로 추려진 연구는 전체 수록 편수의 68.5%인 522편이었다(본 연구에서는 통계 시 비율을 모두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다).

1) Criteria for classification by period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시기별 학술지 연구 변화 흐름 분석은 학술지별 약

10년간의 단위로 기수를 나누어 창간호부터 본 연구 시점까지인 2019년까지의 시기별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 관련 연구의 변화 동향을 조사하였다. <복식>의 경우 창간호인 1977년부터 1989년까지를 1기, 1990년부터 1999년까지를 2기, 2000년부터 2009년까지를 3기, 2010년부터 2019년 12월 69권 8호(통권 제223호)까지를 4기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한복문화>의 경우는 <복식>의 분류된 시기와 같도록 맞추기 위해 창간호인 1998-1999년 간을 2기, 2000년부터 2009년까지를 3기, 2010년부터 2019년 12월 제22권 4호까지 4기로 나누어 시대별 연구 동향의 변화 흐름을 정리하였다(Table 2).

2) Criteria for classification by area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분류된 연구 분야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ble 2> Classification criteria by period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Period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Fourth stage	2010-2019	Third stage (Fourth stage)	2010-2019
Third stage	2000-2009	Second stage (Third stage)	2000-2009
Second stage	1990-1999	First stage (Second stage)	1998-1999
First stage	1977-1989		

‘한국 복식사’ 분야의 경우, Lee, Kim, and Kim(2018), Lee, Lee, and Lee(2018), Song(2017) 등의 연구와 같이 한국복식의 역사 및 문화, 고증, 출토복식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고, ‘한국복식 미학’ 분야는 Chang(2018), Jung and Lee(2018) 등의 연구와 같이 한국복식의 미적 특성 및 색채의 상징성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는 Kim and Kim(2019), Park(2019), Hwang(2009), Yang and Ryu(2000) 등의 연구와 같이 한국복식의 디자이너 및 디자인 개발, 한국적 패션디자인 이미지 및 작품 분석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고, ‘한국복식 마케팅’ 분야는 Lee and Chung(2019), G.-Y. Park(2013), Kim and Lee(2013), Cho and Kim(2010) 등의 연구와 같이 한국복식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나 한복 시장 및 유통, 한국적 복식 관련 이미지 인식 및 구매의도, 한국복식의 문화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한국복식의 의복구성’ 분야는 Kim and Chang(2015), Lee and Kwon(2013), Kim and Choi(2011) 등의 연구와 같이 한국복식의 패턴, 형태 및 구성, 치수, 봉제 등에 관한 연구를, ‘한국복식의 소재’ 분야에는 Choi and Kim(2019), Sim(2019), An(2007) 등의 연구와 같이 한국복식의 직물 및 염색, 출토복식 직물의 보존 및 보수, 텍스타일 디자인, 문양, 자수, 색동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한국 전통 액세서리 및 소품’ 분야에는 Lee(2018), Ahn and Hong(2017), Choi and Kim(2016) 등의 연구와 같이 한국 전통 장신구 및 소품 디자인, 매듭, 모자, 신발 등에 관한 연구를, ‘한국 전통 뷰티 및 향장’ 분야에는 Chun and Kim(2019), Lee and Chun(2012), Lee(2008) 등의 연구와 같이 한국 전통 화장 문화, 머리모양, 향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

하였다. 그리고 한국복식의 교육매체로써의 활용에 관한 연구(Lee and Lee, 2016)나 한국복식 및 한국 전통적인 것에 관한 연구이지만, 앞서 분류된 목록 중 어느 분야에도 분류하기 어려운 연구(Kim, Kim, and Hong, 2013)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Table 3).

2.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1) Analysis of the trends by period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두 학회지의 시기별 한국복식 연구의 변화 흐름을 분석한 결과, <복식>의 경우 1977년부터 1994년까지는 연간 최소 1권에서 최대 2권까지만 발행되다가 1995년부터 점차적으로 발행 수가 늘어나 1999년부터는 연간 최소 8권, 최대 10권까지 발행되고 있었다. <한복문화>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간 2권씩 발행되다가 2001년에는 연간 4권,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간 3권,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시 연간 4권씩 발행되고 있었다.

창간호부터 본 연구 시점까지 이 두 학회지에 실린 총 3,423편의 연구 중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 총 1,348편의 연구를 시기별로 맞추어 각각 합산한 결과, 제1기(1977-1989)에는 전체의 5.2%에 해당하는 70편의 연구가, 제2기(1990-1999)에는 17.0%에 해당하는 229편, 제3기(2000-2009)에는 40.0%에 해당하는 539편, 제4기(2010-2019)에는 37.8%에 해당하는 510편이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1기부터 제3기까지 각 구간별 연구 수록 편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제4기에는 제3기에 비해 약

<Table 3> Classification criteria by area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Classification	Criteria
History of Korean costume	-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costume - Historical research - Excavated costume, etc.
Aesthetics of Korean costume	-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costume - Symbols of colors, etc.
Korean costume design	- Korean costume designers - Development of Korean costume design - Korean fashion design images, analysis of works, etc.
Korean costume marketing	- Industrialization of Korean costume - Hanbok market and distribution - Recognition and intent to purchase images related to Korean costume - Development of Korean costume cultural content, etc.
Construction of Korean costume	- Pattern, form, construction and dimensions of Korean costume - Sewing, etc.
Textiles of Korean costume	- Textiles and dyeing of Korean costume - Preservation and repair of excavated costume fabric - Textile design - Pattern, Korean multicolored stripes (saekdong), quilted, embroidery, etc.
Korean traditional accessories and props	- Korean traditional accessories and props design - Korean traditional knot - Korean traditional hat - Korean traditional shoes, etc.
Korean traditional beauty and cosmetics	- Korean traditional makeup culture - Korean traditional hair style - Korean traditional perfume, etc.
Other	-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Korean costume as an education media - (related with Korean costumes and traditional Korean things but) Studies that are difficult to classify in any of the preceding categories of 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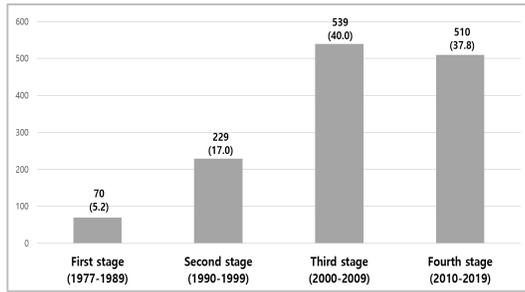
간 감소하고 있었지만 4기에도 해마다 적게는 40편 이상, 많게는 60편 이상으로 여전히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2) Analysis of the trends by area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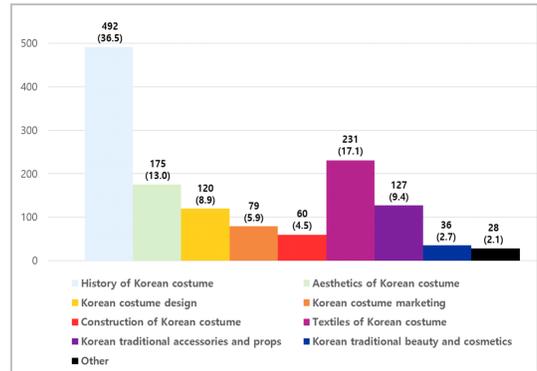
두 학회지의 분야별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 복식사 분야가 전체 1,348편의 36.5%에 해당하는 492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231편(17.1%)의 한국복식의 소재 분야, 175편(13.0%)의 한국복식 미학 분야, 127편(9.4%)의 한국 전통 액세서리 및 소

품 분야, 120편(8.9%)의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 79편(5.9%)의 한국복식 마케팅 분야, 60편(4.5%)의 한국복식의 의복구성 분야, 36편(2.7%)의 한국 전통 뷰티 및 향장 분야, 28편(2.1%)의 기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한국 복식사 분야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는 8.9%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적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Fig. 2).

두 학회지의 각 분야별 수록 편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보아도 <복식>의 경우 한국 복식사 317편(38.4%), 한국복식의 소재 148편(17.9%), 한국복식 미학 108편(13.1%), 한국 전통 액세서리 및 소품 82편



<Fig. 1>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by period



<Fig. 2>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by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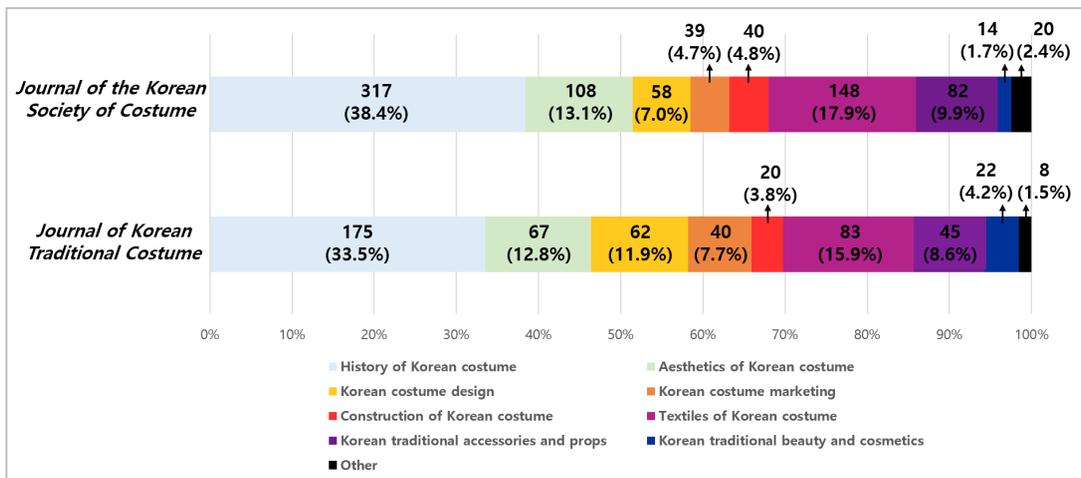
(9.9%), 한국복식 디자인 58편(7.0%), 한국복식의 의복구성 40편(4.8%), 한국복식 마케팅 39편(4.7%), 기타 20편(2.4%), 한국 전통 뷰티 및 향장 14편(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복문화>에서는 한국 복식사 175편(33.5%), 한국복식의 소재 83편(15.9%), 한국복식 미학 67편(12.8%), 한국복식 디자인 62편(11.9%), 한국 전통 액세서리 및 소품 45편(8.6%), 한국복식 마케팅 40편(7.7%), 한국 전통 뷰티 및 향장 22편(4.2%), 한국복식의 의복구성 20편(3.8%), 그리고 기타 8편(1.5%) 순으로 높게 나타나, 두 학회지 모두 한국 복식사 분야(약 30%-40%)에 연구가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는 각 학회별 연구비중의 순서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었지만 두 학회지 각각 7.0%, 11.9%만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Fig. 3).

3. Analysis of the trend in the area of Korean costume design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 연구는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두 학회지의 총 수록 연구의 8.9%(120편)를 차지하였으며,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한국복식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한 추후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 기준을 나누어 그 동향을 알아보았다.

먼저 창간호부터 2019년까지 시기별로 <복식>과



<Fig. 3> Number of studies in each journal by area on the Korean costume and traditions

<한복문화>에 실린 한국복식 디자인 연구 수록 편수 조사 결과, 제1기에는 수록된 연구가 없었고, 제2기부터 14편(11.7%)으로 조금씩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3기와 4기에는 각각 51편(42.5%), 55편(45.8%)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에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에 대한 시기별 동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Fig. 4).

1) Analysis of the Korean costume design I

세부적으로 분류된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 연구는 크게 한복 및 한국적인 패션디자인에 관한 작품 분석 연구, 현대 한국복식의 디자인 활용 분석 연구, 작품 결과를 제외한 한국복식의 디자인 및 스타일링 방향 제시 연구, 실질적 한국복식 디자인 및 작품 제시 연구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한복 및 한국적인 패션디자인에 관한 작품 분석 연구는 국내의 한복 및 한국적인 의상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영희, 최경자, 이리자 등의 작품 분석뿐만 아니라, 해외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외국 디자이너, 각종 화보나 잡지, 기사 등에 실린 한국적 패션 작품 분석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이 연구들은 특정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들의 작품 세계와 특성을 정리하거나 시대별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변천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연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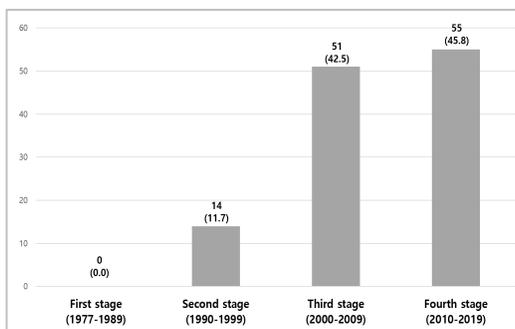
둘째, 현대 한국복식의 디자인 활용 분석 연구 목록의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생활한복과 같은 현대적 한복 제작 업체를 선정하여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한복이 어떤 식으로 현대적 디자인에 활용되었는지 분석하는 연구나 한복 및 한국적인 의상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외한 패션 잡지 등의 시각적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의 전통복식 및 아이템들이 어떤 요소와 결합하여 새롭게 연출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 연구들로, 현대 한국적 패션디자인 활용 요소의 대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들이었다.

셋째, 작품 결과를 제외한 한국복식의 디자인 및 스타일링 방향 제시 연구는 이론적 배경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복 및 한국적인 디자인 개발 방향을 글로 제시하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이템들의 코드 방법과 스타일링을 제시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이는 디자인 창작 발상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적 제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실질적으로 작품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실질적 한국복식 디자인 및 작품 제시 연구는 실제 실물 작품을 제작하여 제시한 연구와 실물 작품까지는 아니어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도식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의상 작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이는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에서 더 확장되어 디자인적 방법론을 적용한 작품 연구로, 개발된 디자인의 결과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를 4가지 세부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복 및 한국적인 패션디자인 작품 분석 연구는 총 120개의 수록 편수 중 17편(14.2%), 현대 한국복식의 디자인 활용 분석 연구는 4편(3.3%), 작품 결과를 제외한 한국복식의 디자인 및 스타일링 방향 제시 연구는 13편(10.8%), 실질적 한국복식 디자인 및 작품 제시 연구는 86편(71.7%)으로 실질적 한국복식 디자인 및 작품 제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Table 4).



<Fig. 4> Research trend in Korean costume design field by period

2) Analysis of the Korean costume design II

한국복식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실질적 한국복식 디자인 및 작품을 제시하는 연구의 경우, 한국복식의 실제적인 디자인의 개발 현황을 보여주는 연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전통한복을 중심으로 의상을 개발한 연구가 많았고, 연구결과로 제시된 각 작품들의 의복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조형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구분

<Table 4> Detailed classification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costume design I

Criteria for classification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costume design I	Number of studies(%)
Studies on the analysis of hanbok and Korean fashion design	17(14.2)
Studies on the analysis of design adapting to modern Korean costume	4(3.3)
Studies on the new directions of Korean costume excluding actual designing	13(10.8)
Studies on actual designs	86(71.7)
Total	120(100)

되었기 때문에 전통한복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2차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통한복의 원형을 재현한 연구(원형재현), 전통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연구(원형변형), 전통한복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디자인 연구(원형탈피), 그리고 한복을 제외한 한국적 전통을 모티브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개발한 연구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전통한복의 원형을 재현한 연구(원형재현)는 작품 결과에 활용된 모티브로 민화, 건축물, 자수, 문양 등의 한국적 전통뿐만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동양의 문양 혹은 서양의 소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나 기본적인 전통한복의 아이템인 저고리와 바지, 치마, 두루마기 등의 전통적인 원형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고, 전통한복의 깃과 동정, 섶과 사폭 등을 나누는 구성선, 허리 바대, 주름, 고름, 끈 등의 형태를 같은 위치와 비율 그대로 사용한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이었다.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전통한복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형태적인 연구에 대한 설명보다는 영감을 받은 자료들을 전통한복에 풀어나가는 과정과 제작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전통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연구(원형변형)는 원형을 재현한 연구와 원형을 탈피한 연구의 중간단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작품 제시에 활용된 모티브가 원형재현에서와 같이 다양하였고, 한복만 모티브로 했을 경우 각 한복의 아이템 요소들을 일부만 따로 떼어내어 한 작품에 결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원형을 변형하거나 일부를 삭제 혹은 추가함으로써 현대복식으로서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형태 변형 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한복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서양 복식의

구성요소 및 형태를 일부 차용하여 전통한복의 형태에 접목시켜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진 것부터 서양 복식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복의 실루엣, 한복의 선, 한복을 구성하는 패턴 등 한복 요소의 일부만을 차용한 작품까지 변형의 범위는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변형의 범위가 강하더라도 형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한복 특성을 잘 보여주는 깃, 동정, 고름, 도련선 등의 전통한복 구성요소들을 일부 그대로 사용하고, 전통적인 한복의 평면 구성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음으로써 전통한복의 틀 안에서 변형을 시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전통한복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디자인 연구(원형탈피)는 한복의 아이템과 구성요소들을 활용하거나 한복의 전통 소재, 조각보 등의 한국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한복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는 설명이 없이 작품만 보았을 때는 한복에서 확장된 디자인이라 말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작품들이었다. 이는 전통한복의 형태를 모티브로 일부 차용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하여 적용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한국적이지 않은 다른 의복과 결합시킴으로써 전통복식의 형태를 완전히 탈피한 형태로 나타나 오히려 서양복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넷째, 한복을 제외한 한국적 전통을 모티브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개발한 연구는 한복을 작품 개발의 모티브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전통 소재, 문양, 색채, 조각보, 벽화 등의 한국적인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패션디자인을 개발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 전통복식은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한복의 원형은 찾아

보기 힘든 작품들이었다. 2차적 분류 기준의 3번째와 4번째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특히 전통복식을 모티브로서 활용했는지에 대한 연구 저자의 설명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토대로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의 실질적 디자인 및 작품을 제시한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가 너무 오래전에 진행되어 작품 사진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거나 각 작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모티브로 활용된 아이템, 혹은 개발된 한복 아이템이 무엇인지 이해가 어려운 작품은 모두 과감히 제외하고 수량을 산출하였다. 다만, 사진으로 각 작품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나온 작품 결과의 분류 기준에 대한 연구 저자의 설명이 충분할 경우,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전통한복의 원형을 재현한 연구(원형재현)는 24편(19.5%), 전통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연구(원형변형)는 50편(40.7%), 전통한복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디자인 연구(원형탈피)는 23편(18.7%), 한복을 제외한 한국적 전통을 모티브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개발한 연구는 26편(21.1%)으로 나타났다(Table 5). 실질적 작품을 제시한 연구의 총 편수와 그 목록에서 더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나온 각 기준의 편수들을 모두 합하면 오차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연구 논문에서 두 개 이상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디자인을 제시한 경우 따로 그 값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기에는 실질적 한국복식 디자인 및 작품 제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1990년대 후인 2기부터 그 변화 동향을 정리하였다. 원형재현 연구의 경우 2기는 1편, 3기는 3편, 4기는 총 20편으로 2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4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원형변형에 관한 연구의 경우 2기는 2편, 3기는 14편, 4기는 34편으로 시기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고, 원형재현과 마찬가지로 4기에 이에 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원형탈피 연구의 경우, 2기는 1편, 3기는 11편, 4기에도 11편으로 2기에 비해 3기에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4기에도 3기와 같은 수치에 머물러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복을 제외한 한국적 전통을 모티브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개발한 연구의 경우, 2기는 1편, 3기는 17편, 4기는 8편으로 다른 분류 기준과 비교했을 때에도 3기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4기에는 가장 적은 연구로 나타나 시기별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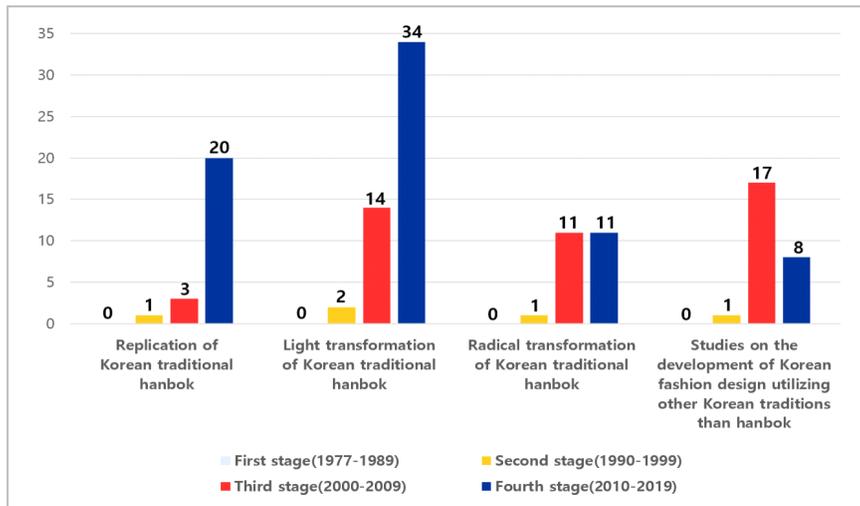
3) Analysis of the Korean costume design III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의 2차적 분석에서 분류한 각 기준별로 주로 개발되거나 모티브로 활용된 한복의 아이템, 혹은 한국적 전통 요소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은 한복의 아이템별 활용 동향과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3차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상의는 저고리, 마고자, 조끼, 당의, 배자, 배넛저고리, 전복, 적삼, 속적삼, 단의 등이 활용되었으며, 하의는 한복 바지, 풍차바지, 치마, 두렁치마, 조끼허리치마, 스란치마, 무지기치마, 단속곳, 속치마, 살창고쟁이(속바지), 색동치마 등이 활용되었다. 예복을 포함한 포 종류로는 두루마기, 철릭, 답호, 단령, 직령, 방령, 액주름포, 도포, 장삼, 원삼, 장옷, 활옷, 오방장두루마기, 사구삼, 앵삼, 학창의, 심의 등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한국적 전통요소로는 조각보, 색동, 단청, 태극기, 전통 누비 기법, 도련선, 전통 문양, 전

<Table 5> Detailed classification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costume design II

Criteria for classification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costume design I	Number of studies(%)	Criteria for classification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costume design II	Number of studies(%)
Studies on actual designs	86(71.7)	Repl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hanbok	24(19.5)
		Light transformation of Korean traditional hanbok	50(40.7)
		Radical transformation of Korean traditional hanbok	23(18.7)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shion design utilizing other Korean traditions than hanbok	26(21.1)



<Fig. 5> Research trend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costume design II by period

통 소재, 전통 색상, 금박, 은박, 오방색, 깨끼 바느질, 멩기 등이 활용되었다(Table 6).

V. Conclusion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복식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한국 문화 및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담은 창의적인 한국복

식 디자인 분야 개발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실질적 디자인 제시에 관한 연구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한국복식 디자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그리고 활발히 개선되고 있는 학술지인 한국복식학회의 <복식>과 한복문화학회의 <한복문화>를 중심으로 시기별 및 분야별로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Table 6> Hanbok and Korean traditional elements used in Korean costume design

Types	Top	Bottom	Po including robes	Korean traditional elements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eogori - Magoja - Vest - Dangui - Baeja(Banbi) - Baenaet Jeogori - Jeonbok - Jeoksam - Sokjeoksam - Danu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nts - Pungcha pants - Skirt - Dureong skirt - Vest-waist skirt - Seuran skirt - Mujigi skirt - Dansokgot - Inner skirt - Salchang gojaengi - Saekdong ski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rumagi - Cheolrik - Dapho - Danryeong - Jikryeong - Bangryeong - Aekjureumpo - Dopo - Jangsam - Wonsam - Jangot - Hwalot - Obangjang, durumagi - Sagyusam - Aengsam - Hakchangui - Simu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gakbo - Saekdong - Dancheong - Taegeukgi - Traditional nubi method - Doryeon line - Traditional patterns - Traditional fabrics - Traditional colors - Gold-ornamented - Silver-ornamented - Obangsaeck - Kkaekki sewing - Daenggi

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에 관한 연구동향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는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던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를 한국 ‘복식’과 ‘디자인’에만 초점을 둬으로써 한복 및 한국적 전통을 모티브로 활용한 패션디자인 분야만의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연구개발 방향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창간호부터 본 연구 시점까지 이 두 학회지에 실린 총 3,423편의 연구 중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는 총 1,348편으로 약 40%에 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학회지에 수록된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들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복식사’, ‘한국복식 미학’, ‘한국복식 디자인’, ‘한국복식 마케팅’, ‘한국복식의 의복구성’, ‘한국복식의 소재’, ‘한국 전통 액세서리 및 소품’, ‘한국 전통 뷰티 및 향장’ 그리고 ‘기타’ 총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전의 한국복식 관련 연구동향에서 분류되지 않았던 한국 전통 액세서리 및 소품 분야, 그리고 한국 전통 뷰티 및 향장 분야를 추가적으로 분류해낼 수 있었다. 특히 추가 분류된 한국 전통 액세서리 및 소품 분야와 한국 전통 뷰티 및 향장 분야는 매 시기가 바뀔수록 약 3배 혹은 4배 이상 수록 편수가 증가하여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가 복식에만 한정되지 않고 두식, 매듭 등의 전통 장신구, 향, 전통 화장 문화 등 다방면으로 넓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두 학회지의 시기별 한국복식의 연구 변화 흐름 분석 결과, 제1기부터 제3기까지 각 구간 별 연구 수록 편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제4기에는 제3기에 비해 약간 감소하고 있었지만 4기에도 해마다 적게는 40편 이상, 많게는 60편 이상으로 여전히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K-drama 등의 한국 대중문화와 2002년 월드컵,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IT 강국의 이미지, K-pop, K-beauty 등의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해 한국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적’인 우리 고유 전통에 관한 연구가 각 분야별로 더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두 학회지의 분야별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

통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한국복식사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는 8.9%밖에 되지 않아 그 비중이 대단히 낮았다. 이는 매우 아쉬운 일로 패션산업에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복식 디자인 개발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의 시기별 연구 동향 분석 결과, 제1기에는 수록된 연구가 없었고, 제2기부터 14편(11.7%)으로 조금씩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3기와 4기에는 각각 51편(42.5%), 55편(45.8%)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에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한국적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1차적 한국복식 디자인 분석 결과, 총 4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한복 및 한국적인 패션디자인에 관한 작품 분석 연구는 총 120개의 수록 편수 중 17편(14.2%), 현대 한국복식의 디자인 활용 분석 연구는 4편(3.3%), 작품 결과를 제외한 한국복식의 디자인 및 스타일링 방향 제시 연구는 13편(10.8%), 실질적 한국복식 디자인 및 작품 제시 연구는 86편(71.7%)으로 나타나 실물 혹은 일러스트 등의 실제 디자인 작품까지 제시하는 연구는 다른 나머지 세 분류 기준에 수록된 연구 주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두 학회지의 총 1,348편 연구 중 6.4%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 한국복식 디자인 제작에 관한 학술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한국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한국복식의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현 시대의 트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작품 제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 6.4%에 해당하는 디자인 제시 연구에는 2차원의 평면 일러스트 및 도식화만 제시한 경우도 일부 포함하였는데, 실물 작품과 같이 직접적인 착장 시 나타나는 의복의 실루엣과 다각도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여섯째, 2차적 한국복식 디자인 분석 결과, 실질적 한국복식 디자인 및 작품 제시 연구들에 포함된 한국복식 디자인 개발 방법은 전통한복의 원형을 재현한

연구(원형재현), 전통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연구(원형변형), 전통한복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디자인 연구(원형탈피), 그리고 한복을 제외한 한국적 전통을 모티브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개발한 연구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었으며, 한복의 원형변형 방법을 활용한 디자인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일곱째, 한국복식 디자인은 한복 이외에 다양한 한국적 전통을 활용한 디자인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한복을 모티브로 한국적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3차적 한국복식 디자인 분석 결과, 한복의 기본 아이템 저고리와 치마, 바지뿐만 아니라 각각의 종류들을 아이템 별 다양하게 활용하였고, 안에 갖추어 입는 한복 속옷의 여러 종류들, 한복 겉옷의 여러 종류들과 조선시대 유생들이 입던 전통복식, 아동들이 입던 전통복식, 승려들이 입던 전통복식, 궁중복식, 예복 등 한복을 모티브로 한 각 아이템과 활용된 한국적 전통요소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봤을 때 활용된 한복 아이템 및 한국적 전통요소의 범위는 대부분 조선시대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차적 한국복식 디자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실질적 한국복식 디자인 및 작품들의 한국복식 디자인 개발 방법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원형탈피 방법론과 한복을 제외한 한국적 전통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시기별로 일정 구간에 머물러 있거나 감소하는 추세인 것에 비해 원형재현과 원형변형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 매 구간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원형변형 방법의 경우, 한복 원형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타문화 혹은 서양의 예술 사조 등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함께 차용하여 창의적으로 개발된 작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조선시대 한복의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 고유의 전통요소나 과거 시대의 원형 강조를 통한 디자인 방법으로는 현 시대에 맞는 디자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됨에도 그 방법론이 조선시대 한복의 원형에 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므로, 한국적 디자인 모티브의 요소 및 시대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창의적인 한국복식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성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학회지의 한국복식 및 한국적 전통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해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의 연구 개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세부적인 분류 기준에 따른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복식 디자인 분야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과거 한국복식도 시대 흐름에 따라 당시 시대별 유행하던 스타일이 계속 변화해왔듯이 이러한 변화는 계속적으로 현재 시대에도 적용되어 현대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적인 전통은 전통대로 지켜나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춘 한국복식 창작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한국 전통복식 변형의 시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통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J.-W., & Hong, N.-Y. (2017). A study on tohw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7(5), 61-74. doi:10.7233/jksc.2017.67.5.061
- An, M. S. (2007).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excavated costu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3), 14-22.
- Chang, M.-J. (2018). A study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from the viewpoint of oriental aesthetics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1(2), 17-34. doi:10.16885/jktc.2018.6.21.2.17
- Cho, W. H., & Kim, M. Y. (2010). Research on consumer recognition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hanb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2), 130-143.
- Choi, I.-S., & Kim, E.-J. (2016). A study on the production a norigae using motive ornaments in music instrument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9(1), 43-55. doi:10.16885/jktc.2016.02.19.1.43
- Choi, I.-S., & Kim, E.-J. (2019). Development of t-shirt textile design by motifs of traditional jogakbo and hangeul.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2(1), 17-27. doi:10.16885/jktc.2019.03.22.1.17
- Chun, H.-S., & Kim, E.-H. (2019). Traditional Korean hand and nail beautification culture. *Journal of*

- Korean Traditional Costume*, 22(1), 29-45. doi:10.16885/jkctc.2019.03.22.1.29
- Hwang, E.-S. (2009). Modification of hanbok design appearing in art works of designer Lee RheeZa.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2(2), 43-60.
- Jung, S.-E., & Lee, S.-Y. (2018). A study on the color features of female hanbok in modern time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1(3), 23-36. doi:10.16885/jkctc.2018.9.21.3.23
- Kim, E. Y. (2017, February 27). 기모노 기죽인 ‘한복의 미’ ... 외국인 손끝에서 재탄생한 한복 [The beauty of hanbok: Hanbok reborn from the finger tips of foreigners]. *Chosun Biz*,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633143&memberNo=28162671>
- Kim, E. Y. (2019, January 18). 루이비통 패션쇼에 태극기가 등장했다 [The Korean flag Taegeukgi appeared on the Louis Vuitton fashion show]. *Chosun Ilbo*,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0418.html
- Kim, H.-J., & Chang, M.-J. (2015). A study of pattern analysis in the books entitled hanbok construction - Focusing on the womens jeogori.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8(2), 95-109. doi:10.16885/jkctc.2015.6.18.2.95
- Kim, J. A., & Lee, E.-J. (2013).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alysis of the traditional clothing industry.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6(1), 179-193. doi:10.16885/jkctc.2013.04.16.1.179
- Kim, K. H. (2017). Study on Korea costume research trends in domestic - Focused on journal publications from 2005 through 2015.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0(1), 5-16. doi:10.16885/jkctc.2017.03.20.1.5
- Kim, M. J. (2016, January). Fashion designer 김영진 [Fashion designer Kim youngjin]. *Design House*,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3/72730
- Kim, M. J., & Kim, S.-Y. (2019). A study on the design of saenghwal hanbok for infants and toddlers using Hubaekje roof-tile patter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9(1), 91-108. doi:10.7233/jksc.2019.69.1.091
- Kim, S. A., & Choi, K. S. (2011). A study on the formation of bangryeong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7), 17-34.
- Kim, S. Y. (2019, July 19). BTS가 입은 이 한복, 없어서 못팔아요 [Hanbok worn by BTS, selling like hot dogs]. *Chosun Ilbo*,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0054.html
- Kim, T. W. (2018, February 20). 해외 디자이너들의 ‘한글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 [Foreign designers’ love of hangeul continues]. *HUFFPOST*,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gotgam_kr_5a8bcb06e4b0117adf7155b1
- Kim, Y. J. (2007). A study on the study status of hanbok cultural society examined through scientific journal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0(3), 131-137.
- Kim, Y. K., Kim, J. M., & Hong, N. Y. (2013). A study on the mannequins for the display of hanb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6), 113-126. doi:10.7233/jksc.2013.63.6.113
- Kim, Y. R. (2019, December 4). ‘한국기모노’에 통곡 하던故이영희 한복, 佛기메박물관 기증(종합) [Lee Young-hee’s hanboks donated to the Guimet Museum, France]. *Yonhap News*,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167651081?input=1195m>
- Lee, A.-R., & Chun, H.-S. (2012).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incense described in the geology section of ‘True records of King Sejong’.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5(3), 67-83.
- Lee, B.-H., & Lee, C.-W. (2016). The development of program of practical education of hanbok culture: Focus on life-ceremonial clothe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9(4), 77-91.

- doi:10.16885/jkctc.2016.12.19.4.77
- Lee, E. J. (2008). Royal ladies' hair styles of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3), 19-33.
- Lee, E.-J., Kim, Y.-S., & Kim, M.-G. (2018). Historical study on the official costume of the Ungjin Baekje 5-kings memorial service.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1(4), 157-175. doi:10.16885/jkctc.2018.12.21.4.157
- Lee, J.-E., & Kwon, Y.-S. (2013). A study on the jeogori pattern for early elementary school girl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6(3), 31-48. doi:10.16885/jkctc.2013.12.16.3.31
- Lee, J.-Y. (2018). A study on the applications and appearance of jeongja-gwan in the late Joseon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8(5), 179-192. doi:10.7233/jksc.2018.68.5.179
- Lee, M. J., Lee, J. S., & Lee, K. M. (2018). A content analysis of Maeil Shinbo editorials on clothing culture in the 191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8(7), 119-136. doi:10.7233/jksc.2018.68.7.119
- Lee, M.-S., & Chung, K.-H. (2019). An exploratory study for building an online platform for mass customization hanbok design.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2(1), 101-119. doi:10.16885/jkctc.2019.03.22.1.101
- Lim, S. Y. (2015, May 7). 샤넬 2015-16 크루즈 컬렉션 '한복'에 대한 '라거펠트'의 풀이 [Lagerfeld on Chanel 2015-16 cruise 'hanbok' collection]. *Maeil Business Newspaper*,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5/05/433821/>
- Park, G.-Y. (2013). The analysis of utilization and problems of Korean ancient armor as cultural content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6(2), 153-165. doi:10.16885/jkctc.2013.08.16.2.153
- Park, K. H. (2015, October 22). 패션이 된 한글 [Han geul becomes fashion]. *Chosun Ilbo*,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7/2015091701970.html
- Park, K. S. (2013, January). 한복의 재발견, 어울림 [Rediscovery of hanbok, eoullim]. *Design House*,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happy.designhouse.co.kr/magazine/magazine_view?info_id=61754
- Park, S. M. (2019). An observation on Kyung-Ja Choi,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 Focus on the activities from 1950s to 1970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9(3), 119-140. doi:10.7233/jksc.2019.69.3.119
- Sim, Y. O. (2019). A study on textiles from the wooden bodhisattva statue built in 1502 at Gwaneumsa temp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9(2), 74-89. doi:10.7233/jksc.2019.69.2.074
- Song, M. K. (2017). The excavated costume of tomb for Seonseonggun(宣城君) Lee Heum(李欽, 1522~1562).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0(4), 83-96. doi:10.16885/jkctc.2017.12.20.4.83
- Wang, J. H. (2011, June 12). The traditional hanbok in the modern world. *Epoch Times*,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theepochtimes.com/the-traditional-hanbok-in-the-modern-world_1497109.html
- Yang, C. E., & Ryu, S. O. (2000).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reforme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a scheme for high qua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0(3), 145-159.